

### 제2회 포천시민의 날 기념

# 백일장 · 미술 실기대회 施賞式

#### 함께 나누고 느끼는 작품 높은 점수 받아

포천시는 '제2회 포천시민의 날 기념 백일장·미술 실기대회 시상식'을 지난 6일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백일장·미술실기대회 입상자 125명과 박운호 포천시청·변진수 포천교육장, 이만규 포천문화원장,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원등 내빈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백일장의 심사를 맡은 이석구 포천문화협회 고문은 심사평에서 "300여편의 작품 중 주제를 잘 살리고 진솔한 작품 중심으로 평가해 30편을 선정했다"며 "대회에 많이 참가하고 형식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표현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당부했다.

또 미술부문의 심사를 맡은 이관식 경북대학교수는 심사평에서 "학생들이 주로 포천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며 "다양한 소재 부록과 기법 등이 미비했고, 단순화된 이미지와 함께 나누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과 기관장들의 축사에 이

어 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이었다. 이날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포천시시장 ■백일장부문 ▷ 일반부 ▶차상 박소영(관인면) ▶차하 이영임(선단동), 김경선(관인면) ▷중·고등부(산문) ▶장원 이아연(동남고 1년) ▶차상 이보라(영북중고 2년), 장희주(동남고 1년) ▶차하 이정빈(동남고 2년), 정다운(포천고 1년), 양혜수(포천고 1년) 외 입선 3명 ▷중·고등부(운문) ▶장원 이영주(일동중 2년) ▶차상 박해미(포천고 1년), 박현정(동남고 1년) ▶차하 김슬기(일동중 2년), 심승희(일동중 2년), 남궁혜진(동남고 1년) 외 입선 3명 ■미술부문 ▷유아·유치부 ▶대상 김지명(아람) ▶최우수 김병범(송우초병설) ▶우수 변윤지(화현) 외 입선 22명 ▷중·고등부 ▶대상 김수진(포천고 1년) ▶최우수 최유란(포천고 2년) ▶우수 임샘(포천고 2년) 외 입선 4명 □포천시회의회장 ■백일장부문 ▷초등부(산문) ▶장원 이해인(왕방초 6년) ▶차상 영정인(정교초 3년), 김예린(화현초 3년) ▶차하 조혜



지난 6일 개최된 제2회 포천시민의 날 기념 백일장·미술 실기대회 시상식에서 미술부문 유아·유치부 수상자들에게 학부모들이 꽃다발을 전하며 축하해 주고 있다.

정(왕방초 4년), 방지은(송우초 3년), 정다예(영북초 3년) 외 입선 5명 ▷초등부(운문) ▶장원 이현주(송우초 5년) ▶차상 김민아(추산초 1년), 서예빈(가산초 4년) ▶차하 이유리(일동초 5년), 변현석(내촌초 5년), 이지혜(송우초 5년) 외 입선 8명 □포천교육장 시상 ■미술부문 ▷초등부(저) ▶대상 이승

재(일동초 2년) ▶최우수 김지윤(선단초 3년) ▶우수 김예빈(영북초 1년) 외 입선 20명 □포천문화원장 시상 ■미술부문 ▷초등부(고) ▶대상 정예은(종리초 4년) ▶최우수 김지수(보장초 5년) ▶우수 김미정(송우초) 외 입선 21명.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문화칼럼

## 비무장지대 - 그 진정한 평화와 생명의 땅



강 구 원 화 가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관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가지 글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 인민군최고 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특근 대장, 마크 더블류 플라크/ 참석자: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 지원군대표단 수석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미국 특근 준장 윌리엄 케이 헤리스."

이상이 1953년 7월 27일 하오 10시 정각부터 12분간에 걸쳐 조인된 정전협정문서의 서면 내용이다.

이 군사정전에 관한 서면내용이 체결됨으로써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이 선에 따라 남북으로 각각 2km씩 너비 4km의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다.

비무장지대라 함은 말 그대로 무장을 해제한 곳으로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평화지역을 말한다.

지난 여름 경기북부작가회는 포천반월아트홀에서 '비무장지대 재조망전' 전시회 개최를 결정하고 비무장지대와 철원의 노동당사 그리고 연천 조각나라에서의 민홍선예술제 개막에 이르는 답사를 했었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주제를 가진 전람회였기에 꼭 필요한 답사였고 또한 일반인 누구나 갈 수 없는 곳이기도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계획된 답사였다. 참여한 작가들은 한국전쟁과 분단, 그리고 현실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새롭게 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풍경은 그야말로 푸른 낙원처럼 풀과 숲들이 우거진 평화로운 지대였다. 새와 짐승들의 낙원으로 철조망을 경계하듯 뛰어가다 뒤돌아본 노루의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하지만 고요 속의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총, 포구를 서로 향하고 있는 긴장의 지대이기도하다.

장미의 아름다움에는 가시가 숨겨 있듯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비무장지대의 풍경은 다만 눈으로 느낄 뿐 가서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있으니 마음 아픈 일이다.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에 섬 안의 섬처럼 굳게 닫혀 발길 끊긴지 반세기, 우리는 비무장지대라는 즉 평화라는 언어 속에서 더욱욱 불안과 긴장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울타리여야 함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은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비극과 아픔을 50년 이상 아니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치유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현실에 비무장지대라는 단어가 더욱 슬프게 느껴진다.

우리의 문화예술운동에서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갖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10여년전부터 많은 작가들이 분단 상

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화술분야에까지 그 범위는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미술에 있어서의 비무장지대에 예술은 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보다는 형식에 갇혀 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형식이 내용을 지워버리는 경우 그 형식을 깨지 않고는 새로운 내용을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작에서 보여주었던 많은 작가들의 호응은 차츰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경기북부작가회의 "비무장지대 재조망전"은 정경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는 작가들로 근대사의 슬픈 역사와 분단의 현실을 재 조망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다.

비무장지대를 곁에 두고 있는 접경지역은 그동안 사실상 군사, 도발, 고통, 긴장으로 상징되는 지역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냉전체제의 붕괴와 우리경제의 성장은 그러한 인식에서 차츰 희망, 평화, 생명, 환경, 생태 쪽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번 전시 작품에서도 화해와 용서, 평화와 생명을 기초로 하는 작품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많은 일반인들의 인식변화와 그 맥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1년 한국전쟁당시 민간인 학살을 표현한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부제로 "Korean War"가 일본에서 전시될 때, 전쟁당사국인 우리의 정치가들과 언론, 평들은 피카소를 맹경이로 매도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그림은 전쟁의 잔학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명작이라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아쉬운 점은 이 땅에서 태어나 자라고 호흡하면서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의 화가가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한 그림이 보이지 않은 것이 웬지 마음을 무겁게 한다.

"비무장지대!" - 그 진정한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15)



## 사냥꾼 '만석이'

사서 먹고 더러는 거저 얻어먹는 터이라 만석이네를 부러워하였다.

산돼지를 비롯하여 노루, 토끼, 꿩 등등 많은 짐승들이 만석이네 집으로 잡혀갔으며 생업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가 아니 오고 가뭄이 드는가 하면 저수지가 터져서 마을이 물바다를 이루는 난리를 겪었다.

모두를 산신령님이 만석이의 산짐승 납획을 꾸지람하는 이번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만석이가 산짐승을 많이 잡는 바람에 산신령님이 노해서 마을에다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고들 수군거렸다. 그래서 마을 촌장님은 만석이에게 산짐승 사냥을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만석이 부자(父子)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고 한다.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더욱 기승을 부리며 산짐승을 잡아다 집에다 내다 팔기도 하였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다.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자기가 놓은 '움무'에 걸려 죽고 말았다 한다.

어떤 사람은 마을 촌장님의 당부를 어긴 죄라고도 하였으며 산신령님과 국수당 할머니신의 노하심이라고도 하였다.

그 후, 산짐승 잡기는 뜸하였다. 마을 당제사도 늘 산의 신령을 생각하며 살았다. 왕방산 국수봉은 일제시대 일본의 학자들이 동식물을 표본 조사 하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 기록을 찾을 길이 없어 유감스럽게 그치지 않는다.

6.25전만 하여도 왕방산 기슭, 물어고개 근처는 동식물의 보물창고였다.

두드러면 소리나는 피아노 바위, 부싯돌로 이름난 부싯돌 바위, 범의 형상을 한 범바위, 신선이 장기를 두었다는 신선바위, 산신령(알호랑이)님이 추석 무렵이면 금강산에서 하산하여 당제사를 드시러 온다는 물어고개 신당은 옛 모습 간데 없고 약수 애호가들의 인파로 붐빈다. 사냥꾼 만석이는 산신령님의 벌을 받고 저 세상으로 갔다. 제2의 만석이가 되지 말고 왕방산 기슭은 보호되어야 한다.

필자 연락처 02-932-2434

# 모발의 혁신 퍼 슨 코리아(주)

의정부점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드립니다"

## PERSON KOREA

취침, 운동, 사우나 OK!!

### 퍼 슨 심는가발맞춤점

대표: 1544-5868 본사: 02)3143-6474-6

- 고객만을 위한 1:1 상담, 시술
- 양질 100% 인모 심는 가발
- 다양한 신제품
- 오랜경력의 스타일링
- 전국지점망 A/S
- 타사제품 관리, 수리

전국 대표 : 1544-5868 / 문의 : 031) 848-6476 / 지점장 : 김 나 영 www.personhair.co.kr